행복한마을, 채식공양으로 마음 담다

휴심성 불사 착공 기념 대중공사 눈길

휴심정 불사 착공과 함께
창립 14년 기념 의미 담아
3사 대중에 채식 공양진행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불사 착공을 행사가 아닌 삼보사찰 대중공양으로 회향한 특별한 행사가 눈길을 끈다. 사부대중 공동체 행복한마을(대표 은산)은 7월 12일 휴심정 불사 착공과 창립 14주년을 맞아 해인사에서 대중공양을 올렸다.

이날 대중공양은 행복한마을 창립 14주년과 사부대중 공동체 처소인 '휴심정' 불사 시작의 의미를 담아 삼보에 감사하는 의미로 진행됐다. '휴심정'은 '마음이 쉬는 정원'이란 뜻으로 행복한마을 내 재가불자들의 주거 공간이다. 공동체에서 수행하고자 발원하는 재가자들의 요청으로 거창 행복한 마을 내에 12가구,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8가구가 새롭게 만들어 질 예정이다.

이번 삼보 대중공양은 6월 30일 통도사를 시작으로 7월 12일 해인사서 진행됐으며, 7월 26일 송광사서 진행된다. 해인사 대중공양에는 거창과 부산에서 수행하는 행복한마을 대중과 부산 영도 미륵사 불자 등 27명이 동참했다.


사부대중 공동체 행복한 마을이 7월 12일 해인사에서 대중공양을 올렸다. 창립 14주년과 공동체 재가자 주거 공간 휴심정 불사 원만 회향을 기원하며 공양을 올린 대중들의 모습.

대중공양 음식은 곤약으로 만든 '채식 스시', '아보카도 롤', '간장버섯 밀불고기', '콩까스', '양장피', '꼬지 산적', '비빔 메밀국수', '팔보채' 등 27가지로 모두 채식 재료만으로 만들어 졌으며, 특별히 제작한 두부도 함께 올려졌다. 또, 단백질 함유량을 높인 콩까스와 거창서 생산된 일등품 사과로 만든 특제 소스도 함께 포함됐다.

이번에 공양물로 올려진 두부는 행복한마을이 공동체 자급자족을 위한 마을기업 생산제품 차원으로 현재 일반 마트에 납품하는 것으로 국산콩과 모링가 잎을 사용해 단백질 함유량을 높인 제품이다.

이번 대중공양에서는 공양을 올리기 위한 대중들의 정성도 남달랐다. 공양 3일 전부터 대중들은 밤을 새며 함께 준비했다. 통도사 대중공양서는 한 시간 가량 수면을 취하며 준비를 했다.

전재선 前 행복한마을 신도회장은 "평소 500인분을 마련하는데 200인분으로 줄여 준비했다. 공양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숙희 씨(베지나랑 채식요리사)는 "오늘 이 공양을 올림으로 공덕을 쌓고 지혜를 얻길 발원하며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함께 했다"고 말했다.

행복한마을 대중들은 공양을 올림으로 가르침을 실천하고 대중이 하나 되는 기회가 돼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숙희 씨는 "수행에서 스님께 배운 바를 실천하는 장으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됐다"며 "수행 실천의 장으로 삼고 모두가 하나 되는 마음을 늘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한마을은 사부대중이 함께 생활하며 수행하는 공동체로 현재 채식식당 베지나랑, 나랑 명상센터, 자급자족을 위한 마을 기업, 행복한 공양주 양성 프로그램 등을 공동 운영하며 생활 속에서 바른 삶과 공동체를 통해 하나 되는 수행정신을 제시하고 있다.



완도 신흥사 대웅전 불사 회향

완도의 청정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완도 신흥사(주지 법공)가 대웅전을 수리보수하고 새로운 기도공간으로 재탄생했다.

7월 11일 대웅전에서 진행한 대웅전 해체보수 회향 준공식에는 前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前 백양사 주지 토진 스님, 대구 보광사 화명 스님을 비롯해 완도지역 사암연합회 회원 스님, 신우철 완도군수, 전남도의회 김한중 의장, 신도 100여 명이 참여해 축하했다.

이날 법회는 삼존불과 후불탱화 점안식도 함께해 새로 수리된 대웅전에 봉안됐다.

법문에 앞서 법공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처음 주지 소임을 맡으면서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대웅전이 쓰러지고 있다'라는 말이었다. 부처님을 모시면서 사는 제자 입장에서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었다"고 소회를 밝히고, "신도들이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다. 마음을 내어 주신 많은 분들에게 한 없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견강암, "어르신 코로나 이겨내세요"

초복 맞아 건강기원 삼계탕 공양 올려

자비실천 도량 견강암이 초복을 맞아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삼계탕 공양을 올렸다. 부산 백양산 견강암(주지 향공)은 7월 15일 모라 고동바위 공원에서 '사랑의 삼계탕'을 나누고 어르신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했다. 삼계탕은 총 400인분이 마련됐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도시락으로 포장해 어르신들에게 전달됐다.

삼계탕 공양비는 견강암 백중기도 동참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지 향공 스님은 "사실 요즘 가장 어려운 것은 경제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나의 것이 없다'는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태고종 나누우리, 나눔으로 돌아본 10년

10주년 창립기념 법회 봉행

사단법인 나누우리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나눔을 실천했다. (사)나누우리(이사장 도산)는 7월 11일 진주 동방호텔에서 '창립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나누우리는 10주년을 맞아 장애인 및 환자를 위한 치료 후원비를 전달하고 건강을 기원했다.

법회에는 나누우리 이사장 도산 스님, 태고종 호법원장 지현 스님, 나누우리 상임이사 묵원 스님,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스님 등 사부대중 30여 명이 동참했다.


(사)나누우리는 7월 11일 진주 동방호텔에서 '창립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행사는 △삼귀의례 △반야심경봉독 △발원문 △묵념 △나누우리 활동소개 및 동영상 시청 △내빈소개 △치료후원금 대상 환아 소개 및 후원금 전달 △창립기념사 △축사 △감사패 및 공로패 전달 △축하 케익 절단식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치료 후원금 대상자는 경상남도 건강가정 다문화 지원센타에서 추천 받은 강희진 (가명 · 10) 소아뇌질환자 외 2명이며 각100만원, 총300만원을 전달했다.

감사패는 하경목 BTN불교TV 기자와 신원식 도서출판 중도 대표에게 전달됐으며, 공로패는 대외협력이사 자우 스님, 홍보이사 무종 스님, 김종호 나누우리 이사에게 수여됐다.

이사장 도산 스님은 "10년이란 세월 속에 동참해주신 모든 스님들과 후원자들이 있어 가능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받은 것을 돌려준다는 마음으로 자비행을 실천하자"고 당부했다.

호법원장 지현 스님은 "쉼 없는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와 희망을 안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청정한 불심 일깨우기 위해 최선을"

성각 스님, 법무부 교정대상 자비상 수상

"모든 인간이 청정한 불심(佛心)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남해 망운사 주지 성각 스님<사진>이 제38회 법무부 교정대상 자비상을 7월 9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수상했다.

성각 스님은 30여 년 전 마산 교도소에서 교화활동을 시작해 현재 진주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스님은 어려움에 처한 수용자들과 인연을 맺고 영치금 및 명절 합동차례 지원 등으로 보살행을 실천했다. 특히 스님의 선화 24점을 진주 교도소에 기증해 맑고 청정한 불심을 일깨우고자 노력했으며, 현재 이 작품들은 수용자와 직원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통로에 '가온길 갤러리'란 이름으로 전시되어 있다.



성각 스님은 "종교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공 고

원로회의 및 종정추대회의 결과

한국불교태고종은 7월 15일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개최한
원로회의 및 종정추대회의 결과를 공고합니다.

원로회의는 재적의원 21명 중 20명이 참석해 성원됐으며 제5대 원로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원로회의는 또 공석이었던 종정 스님을 추대하기 위해 종헌종법에 따라 총무원장 호명 스님,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 호법원장 지현 스님이 참여하는 종정추대회의를 개최하고 태고종 제20세 종정을 추대했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은 종단 정상화와 위상 제고를 위해 더욱 진력하겠습니다.
종도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제20세 종 정 : **지허 대종사**
제5대 원로회의 의장 : **도광 스님**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 **대은 스님**
원로회의 차석부의장 : **설운 스님**

불기 2564(2020). 7. 15.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호 명